

北韓社會 研究를 위한 基礎資料 分析

——「로동신문」 사설의 内容分析을 통한 北한사회
변동의 추적, 1952~85*

李 温 竹**

<차례>

I. 序論	3. 정치부문
II. 資料의 分析方法	4. 국제관계부문
1. 자료의 성격	5. 사회·문화부문
2. 분석의 틀	IV. 用語와 表現의 변화추세
III. 社說의 主題에 나타나는 變動 양상	1. 표현 양식과 強度
1. 대분류 범주들에 의한 변동	2. 특기용어
추세	3. 語尾의 표현
2. 경제부문	4. 특이한 형용적 표현
	V. 討論

I. 序論

북한사회를 연구하고자 할 때 가장 근본적인 제약은 자료의 부족이다. 첫째, 북한이라는 사회 자체에서 경험적 연구를 하는지 조차 알 수 없지만, 스스로 경험적, 분석적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는 동구를 비롯한 공산권 사회의 일반적인 폐쇄성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Mesa-Lagos, 1975; 이온죽, 1984). 따라서 경험적 연구를 가능케 하는 자료의 생산이 없거나 드물다고 보겠다.

둘째, 자료가 있다해도 그것을 밖으로 제기·반포하지 않는다. 세째, 외

* 이 논문은 1985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전산처리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남춘호 조교가 도와주었다. 자료수집 및 정리는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대학원생 이범웅군이 주로 도왔고, 그 밖에, 곽정희, 조남호, 이우용, 홍순옥, 박형곤, 노영준, 진경진, 노병철, 송승용 등이 애써주었다.

** 서울大師大, 社會學

부에 공개하는 자료는 거의 전부가 선전용 자료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 북한사회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는 간접적인 자료분석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다(이온죽, 1982; 이상우, 1983).

비록 북한에서 나온 자료라 하더라도 대내외적으로 정치선전선동의 기능을 일차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연구의 자료인 「로동신문」은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하겠다. 그것은 곧 북한의 정권과黨의 기관지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가장 권위있게 표상해 주는 매체인 것이다(李相斗, 1979:218-219). 신문이면서도 북한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제시·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과 당의 관점을 직접·간접적으로 표명하는 자료에 지나지 않고, 나아가서는 그들의 정책을 주민들에게 주지 내지 설득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북한사회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것은 그 매체를 통해 북한의 정권과 당은 그 사회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나마 지적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개방사회의 경우에는, 신문보도가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을 뿐더러, 사설과 같은 견해 표명의 수단을 통해 의견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여론의 반영으로, 또는 그대로 사회가 나아갈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사회에서는 그 조직원리로 보아 신문의 사실보도나 사설이 모두 그 사회를 이끌어 가는 핵심세력인 정권과 당의 입장을 획일적으로 나타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로동신문」은 북한사회의 「관심사」를 표상하는 자료로서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어차피, 북한사회의 성격이나 변동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가 드물거나 입수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요한 자료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자료제 약의 맥락에서 본 연구가 추구하고자 한 것은 1950년대초, 한국동란 이후 1985년 말까지의 북한사회의 변동의 일면을 추적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 자료로서 1952년 1월 16일자부터 1985년 12월 31일자에 걸쳐 발행한 「로동신문」중 입수 가능한 全數를 대상으로 하여, 社說의 제목을 중점적으로 분류·분석하는 内容分析法을 적용하였다.⁽¹⁾

(1) 1952년 1월 16일자가 입수 가능한 가장 오래된 신문이었다. 그리고 50년대와 60년대초 자료는 주로 하버드대학 엔칭도서관에서, 6,70년대는 북한문제연구소와 국토통일원에서, 80년대는 주로 KBS자료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엔칭도서관의 김성하 선생님과 KBS 김기홍 실장의 협조에 감사드린다.

지금까지 「로동신문」을 내용분석한 보기는 있지만, 모두가 1) 한정된 시기의 것을, 2) 표본추출한 것이었다. 趙亨濬(1972)의 연구는 1962년에서 1970년 사이의 「로동신문」사설의 표본 346 사례를 다루었고, 이상우(1975)는 1967년에서 1973년 간에 매년 20편씩 140편의 사설을 표집했고, 李相斗(1979)은 1977, 78년의 140 사례를 분석하였다. 丁世鉉(1985)은 1970년 1월부터 1984년 12월의 15년에 걸쳐 매월말 신문의 표본 180사례에 대하여 기사의 제목을 내용분석 하였다.⁽²⁾

본 연구는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하나의 기초작업으로서, 기사를 다루는 대신 사설의 全數를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II. 資料의 分析方法

1. 자료의 성격

여기서는 북한사회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의 분석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은 동시에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자료의 성격에 관한 검토를 비교적 자세히 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1952년 1월부터 1985년 12월까지의 「로동신문」이다. 그 중 부분적으로 누락된 것들을 제외하고, 국내외에서 현재 열람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포함했다. 「로동신문」의 경우는 사설이 매일 있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하루에 둘 이상의 사설을 실을 때도 있다. 34년간 게재된 신문의 총수는 5,471부였지만 두편이상이 실린 날이 140일⁽³⁾ 이어서 분석대상이 된 사설의 총수는 5,611편이었다. 앞으로 분석 단계에서 10년대별로 변동추세를 살펴 보고자 하기 때문에, 각 연대별 신문 부수와 사설편수의 분포를 <표 1>에 요약하였다.

50년대는 1952년부터이고 80년대는 1985년까지 임을 참작하면 연대별 분포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표에 나타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50년대와 80년대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설을 게재한

(2) 그 외에도 朴權相(1979), 이 광제(1979)등 북한의 신문·언론을 다룬 연구들이 간혹 있다.

(3) 두편만 실린 날이 137일, 3편이 3일 있었으나 분석의 번거로움을 감안하여 편 이상 세번째 사설 3편은 제외하였다.

〈표 1〉 10년대별 분석대상 신문부수와 사설편수

연 대	분석대상 신문부수	사설 2편을 계제한 신문부수*	분석대상 사설총수
50 년 대	1,452	13	1,465
60 년 대	1,497	80	1,577
70 년 대	1,477	42	1,519
80 년 대	1,045	5	1,050
계	5,471	140	5,611

* 사설 세편이 실린 날도 포함. 세편이 실린 날은 1960.9.9(북한정권 창전 12주년 기념일), 1970.6.6(조선소년단 창립 24주년 기념일), 1978.4.28이다.

〈표 2〉 년월일별 사설수

년도	사설수 [제 2 사설수]	년도	사설수 [제 2 사설수]	월	사설수 [제 2 사설수]	일	사설수	일	사설수
52년	117	69년	116 (7)	1	423 (4)	1	265	18	199
53〃	28	70〃	119 (6)	2	446 (10)	2	173	19	205
54〃	131	71〃	141 (11)	3	489 (8)	3	162	20	171
55〃	298	72〃	122 (7)	4	490 (19)	4	180	21	165
56〃	177	73〃	109 (7)	5	471 (11)	5	198	22	196
57〃	208 (2)	74〃	199 (3)	6	479 (15)	6	195	23	184
58〃	239 (6)	75〃	158 (3)	7	497 (8)	7	196	24	172
59〃	267 (5)	76〃	163 (1)	8	455 (6)	8	183	25	226
60〃	203 (2)	77〃	155 (1)	9	451 (13)	9	207	26	158
61〃	177 (9)	78〃	177 (2)	10	480 (23)	10	181	27	200
61〃	163 (5)	79〃	176 (1)	11	462 (8)	11	181	28	151
63〃	159 (4)	80〃	174 (1)	12	468 (15)	12	172	29	168
64〃	188 (11)	81〃	164 (3)			13	147	30	164
65〃	185 (21)	82〃	159			14	181	31	94
66〃	145 (5)	83〃	187			15	193		
67〃	131 (10)	84〃	179 (1)			16	162		
68〃	110 (6)	85〃	187			17	182		

셈이 된다. 참고삼아 년, 월, 일별 분포를 〈표 2〉에 제시한다.

2. 분석의 틀

내용분석을 위하여 사용한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가) 사설의 주제 분류. 사설의 주제를 정치, 경제, 국제관계, 사회, 문화등의 분야로 대분류하고, 각기 범주마다 중분류와 소분류를 두어, 필요에 따라서는 보다 구체적인 주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표현의 양식과 強度. 위낙 북한언론, 특히 사설의 제목에는 중립적

인 논문식 표현보다 선동·찬양·비방등의 색채와 방향 및 그 強度가 다른 표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주를 책정하였다. 한국의 언론에서는 예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 대조를 염두에 둔 것이다.

(다) 특기 용어. 마찬가지로, 사설제목에 특히 자주 강조해서 쓰이는 말(용어)들이 있다는 것이 눈에 띄어 이것도 별도 분류범주틀에 포함시켰다.

(다) 語尾의 촉구식 표현. 또 한 가지 주목을 끄는 것은, 「로동신문」의 사설에는 그 제목에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선동적인 표현들이 자주 나온다는 것이다. 특히 그 語尾에 「~하자」는 식의 표현들이 두드러지므로, 이것도 따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마) 특이한 형용적 표현. 그뿐 아니라, 북한의 선전 용어중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형용사나 부사들이 독특한 것들이 있다. 「억세계」「떨쳐나서」「창발적」 같은 말들이 그 보기이다.

(사) 기타 특기할 만큼 빈도 높은 형용적 표현들. 그와 같은 형용적 표현 가운데 유난하게 자주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서 이들을 별도로 분류해 보았다.

내용분석을 통하여 일정기간의 사회변동을 추적하고자 할 때, 주제의 내용적 성격을 분류해 보는 것이 중핵을 이루는 작업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특수 용어라든가, 표현양식, 어미의 성격 같은 것들을 내용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기술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김경동·이온죽, 1986) 그것을 통해서도 사회변동의 일면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제의 내용 분류를 함으로써 그 사회의 주된 관심사 또는 강조점의 추세를 짐작할 수 있다면, 표현 양식과 용어의 성격이 변하는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그 사회의 문화적 특징과 그때 그때의 사회적 필요의 절박함의 정도 같은 것을 미루어 추리할 수도 있다.

분석방법은 사설을 분석단위로 삼고, 그 제목의 내용을 위의 분석틀에 의거하여 분류·계산하였다. 제목만으로 뜻이 불분명한 사례는 사설의 내용을 읽어서 주제의 성격을 결정하였다.

주로 변동의 추세를 검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1년 단위의 분석보다는 좀 더 큰 시간단위가 필요하였다. 우선 북한에서 중요한 시기구분의 기준을 보면, 노동당 대회, 주요 이데올로기 변천기 및 경제계획 단계 등이 있다. 이들을 비교해 본 결과 1,2년의 격차가 있을 뿐 대체로 50년대, 60년대, 70

〈표 3〉 북한사회 변동의 주요 시기구분

10년대별	당 대 회	이데올로기 변천	주요 경제 계획
~1950년대	제 1 차 당대회(1946. 8) 제 2 차 당대회(1948. 3) 제 3 차 당대회(1956. 4)	공산주의 이념 정착기 (맑스·레닌 : 스타린주의) 1945. 8~1948. 3 혁명전통 확립기 (맑스·레닌주의 : 항일) 1948. 3~1961. 9	1개년 계획 1947, 48 2개년 계획 1949~50 3개년 계획 1951~53, 54~56 5개년 계획 1957~60 (4개년내 종결)
1960년대	제 4 차 당대회(1961. 9)	주체사상 구축기 (김일성 우상화) 1961. 10~1970. 11	7개년 계획 1961~70 (사실상 10년)
1970년대	제 5 차 당대회(1970. 11)	주체사상 확립기 (김정일 세습) 1970. 12~1980. 10	6개년 계획 1971~76
1980년대	제 6 차 당대회(1980. 10)		제 2 차 7개년 계획 1978~1984

자료 : 북한총람(1983)

년대, 80년대등의 10년대별 시기구분에 큰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III. 社說의 主題에 나타나는 變動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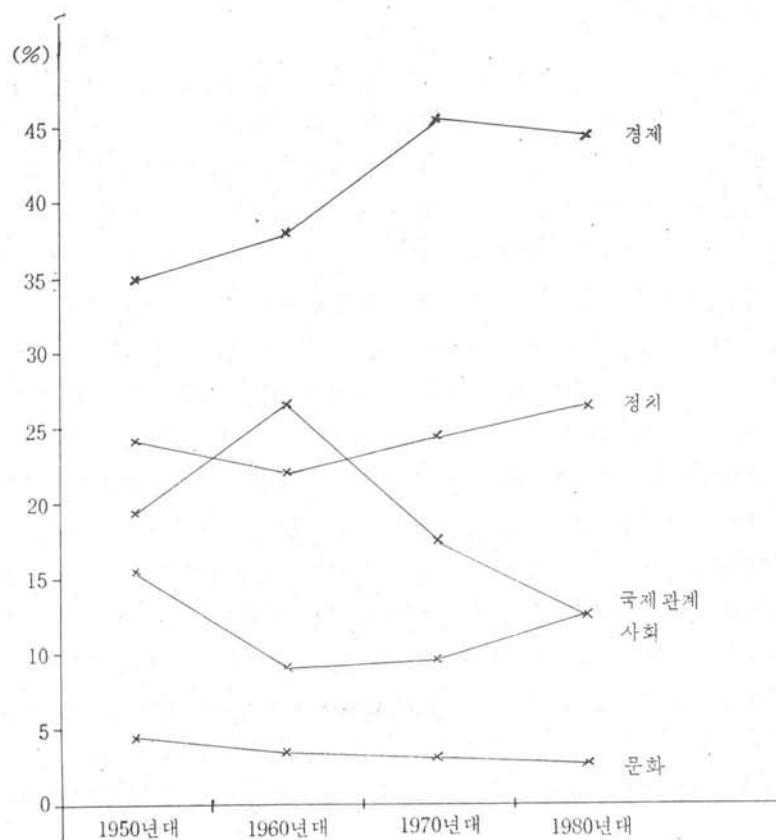
1. 대분류 범주들에 의한 변동추세

주제는 대·중·소 세가지 분류를 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중분류까지만 소개하고 소분류는 너무 번거러워 몇가지만 언급하고 생략한다. 먼저 대분류는 주요 제도적 부문 내지 관심 분야를 기준으로 정치, 국제관계, 경제, 사회, 문화, 기타의 6개 범주로 나누었다. 이 중 경제분야 사설이 전체의 40.3%로 으뜸이고, 다음이 국내정치를 다루는 경우가 24%, 국제관계 사설이 19.7%로 3위이며, 사회가 11.3%, 문화는 3.9%에 불과하다.

주제의 대분류 범주의 변화 추세를 보면, 〈표 4〉 및 〈그림 1〉과 같다. 50년대에는 경제분야 사설의 비중이 가장 크기는 하지만 평균보다 낮은 반면, 사회·문화부문의 사설이 월등하게 자주 나타나고 있다. 60년대에는 국제관계의 상대적 비중이 크게 두드러지고, 70년대에는 경제분야의 사설이 가장 눈에 띄이게 많아졌으며, 80년대에는 다시 정치와 사회 즉 대내적인 문제를 다루는 사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과거의 다른 표집분석에서도 대략 드러나고 있다(조형준, 1972; 이상두, 1979).

〈표 4〉 연대별 주제의 분포(대분류) (%)

	50	60	70	80	계	(N)
경 제	34.8	37.9	45.2	44.6	40.3	(2,261)
정 치	24.2	22.3	24.2	26.3	24.0	(1,348)
국 제 관 계	19.8	26.8	17.2	12.6	19.7	(1,106)
사 회	15.8	8.3	9.1	12.7	11.3	(634)
문 화	4.8	3.7	3.6	3.2	3.9	(219)
기 타	.5	1.1	.7	.7	.8	(43)
계	99.9	100.1	100.0	100.1	100.0	
(N)	(1,465)	(1,577)	(1,519)	(1,050)		(5,611)
	26.1	28.1	27.1	18.7	100.0	



〈그림 1〉 주제별 추세(대분류)

전반적으로 보아, 1950년대는 전후 복구기로서 경제건설도 중요하지만 무너진 사회의 기강을 회복시키고 이를 위한 문화적인 선무활동을 중시한 때라 하겠다. 50년대만해도 소위 월북한 낭만적 좌경인테리들이 (Intelligentsia) 주요 정책결정자리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60년대에는 제3 세계등 국제관계에 역점을 두고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이며, 70년대에는 사회주의 경제의 확장과 더불어 이데올로기 토착화를 통한 김일성 우상화가 가열되던 때이다. 80년대에도 여전히 경제와 정치를 강조하는 한편, 사회의 재조정에 힘쓰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좀 더 면밀히 살펴 보기 위하여 중분류에 따른 각 부문의 주제별 추세를 분석해 보았다.

2. 경제부문

〈표 5〉를 보면, 경제부문에서 가장 자주 사설의 언급을 받은 것이 농업으로 27.6%를 차지한다. 이어 경제사업과 노동의 독려가 9.2%, 경제의 운용과 정책에 관한 언급이 7%, 그리고 광업(6.3%), 중공업(5.1%), 운수·체신(5.1%), 경공업(5%) 등 산업부문별 강조가 뒤따른다. 이러한 부문별 언급을, 농업을 제외한 산업부문만 합쳐도 전체의 34.6%나 되고, 농업까지 합하면 62.2%에 이른다. 그 나머지가 경제와 관련된 갖가지 쟁점들이다.

1950년대에 평균보다 두드러지게 빈도가 높은 주제는 경제운용과 정책 및 산업이며, 그 밖에 경제사업과 노동, 경제적인 태도 그리고 축산에 대한 강조가 그 다음으로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난다.

60년대에는 농업의 중요성이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다. 활용할 수 있는 농지면적이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식량의 자급자족이 그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였을 것이다. 천리마운동, 청산리 사업, 대안사업등 특수명칭사업의 강조⁽⁴⁾와 축산장려에 이어 계절적 변화에 따른 대비책의 강조등이 두드러진다. 이때는 1961~67년의 7개년 경제계획이 시행되었고, 1964년 2월 25일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여 농업부문의 기술혁신을 크게 강조한 시기이다. 1968~70년에는 3개년 계획을 연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역시 농촌의 기술·문화·사상혁명을 중시하며,

(4) 천리마운동은 1956년에 제창 1959년에 본격적으로 실시되었고, 청산리사업은 60년 2월에, 대안사업은 61년 12월에 각각 시작되었다.

〈표 5〉 경제부문 연대별 주제의 분포(증분류)

(%)

	연 대				계
	50년 대	60년 대	70년 대	80년 대	
농 업	27.4	35.8	25.5	20.3	27.6
경제사업, 노동	10.2	5.0	9.3	13.5	9.2
경제운용, 정책	11.4	5.7	6.3	4.9	7.0
광 업	4.1	5.5	7.1	8.6	6.3
중 공 업	3.3	3.2	6.1	7.9	5.1
운 수, 체 신	3.5	2.5	8.8	4.7	5.1
경 공 업	4.3	5.9	4.5	5.1	5.0
특수명칭사업	.8	6.9	6.1	3.8	4.6
수 산, 어 업	3.1	4.4	4.5	5.8	4.4
자 재, 설 비	3.5	4.9	2.9	4.9	4.0
계절변화 대처	3.9	4.2	4.4	1.9	3.7
에 너 지	1.8	2.0	2.8	3.8	2.6
경 제 적 태 도	3.7	1.7	1.8	3.6	2.6
축 산	3.3	4.4	1.0	.8	2.4
건설, 국토관리	2.6	.8	2.9	3.2	2.3
경 영 개 선	2.9	1.7	2.0	3.0	2.3
임 업	2.4	2.5	2.0	2.4	2.3
기 술	1.8	2.5	1.0	1.7	1.7
상 업	5.9	.5	.9	—	1.7
계	99.9	100.1	99.9	99.9	99.9
N	510	597	686	468	2,261

농촌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한 때이다. 그리고 농축산물과 과실등의 증산을 특히 독려하여 식량자급에 주력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 시기에도 계속 중공업 및 경공업부문의 생산제고에 힘쳤다(북한연구소, 1983).

1970년대 「로동신문」의 경제판계 사설에서 전체 평균보다 특히 두드러진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운수·체신부문이며, 특수명칭의 사업에 대한 강조도 계속 거론하고 있고 중공업도 비교적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 이 시기는 60년대까지 공업의 성과를 공고히 발전시키면서 기술혁명을 한층 높은 단계로 전진시키고자 하는 때였다.

80년대에 오면, 부각시키는 바가 경제의 운용과 정책, 경영개선, 경제적 태도 같은 것으로 다시 바뀌고 있다. 이는 50년대의 강조점과 비슷하다. 물론, 광업, 중공업, 수산·어업 같은 부문의 중요성과 더불어 자재·설비분

야, 에너지, 건설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강조가 눈에 띠이기도 한다. 아마도 70년대 후반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동시에 김일성 부자세습의 정치적 난관을 타개하고자 하는 측면이 엿보인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은 농업의 비중이 공업(중공업과 경공업을 합친 것)보다 50년대는 3.6배, 60년대는 3.9배, 70년대는 2.4배, 80년대는 1.6배로 차츰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면서도 전반적으로는 각년대에서 $\frac{1}{3}$ 내지 $\frac{1}{5}$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농업을 중요시함에도 불구하고 공업화를 통한 경제변동의 강조가 여실히 드러난다.

3. 정치부문

정치분야에서 자주 떠오른 주제를 보면 黨이 21.1%로 가장 많고 민족(16.8%), 혁명(16.5%)이 다음이고 남한에 대한 언급을 국제관계가 아닌 대내정치문제로 취급했을 때 13.2%로 4위를 차지한다. 김일성과 主體가 7.2%, 정치구조와 과정에 대한 언급이 6.4%, 인민(5.5%), 정치사업(5.1%), 軍(3.1%), 국가(2.4%), 행정(2.1%)등의 순서이다.〈표 6〉.

이것을 연대별로 보면, 먼저 50년대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黨을 위시하여 정치사업, 정치구조와 과정 및 인민에 관한 언급이다. 이것들은 정권의 기

〈표 6〉 정치부문 연대별 주제의 분포(종분류) (%)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계
당	33.3	12.0	15.3	24.6	21.1
민족	15.5	20.2	20.2	9.8	16.8
혁명	8.5	16.0	21.2	21.0	16.5
남한	4.8	26.5	9.8	11.6	13.2
주체, 김일성	.6	2.9	15.8	12.3	7.7
정치구조, 과정	10.2	5.1	6.0	4.0	6.4
인민	7.9	3.4	3.5	7.6	5.5
정치사업	11.3	2.9	1.6	4.7	5.1
군·군사력	2.8	4.8	2.2	2.5	3.1
국가	3.1	2.9	2.2	1.1	2.4
행정	1.7	3.4	2.2	.7	2.1
기타	.3	—	—	—	.1
계	100.0	100.1	100.0	99.0	100.0
N	354	351	367	276	1,348

반인 츠약한 시기에 당과 정권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 하겠다. 이때만 해도 김일성의 언급은 거의 없었고 심지어 혁명이나 남한에 대한 비방·자극도 평균보다 훨씬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60년대에 이르면, 남한에 대한 언급(대부분이 비방)이 으뜸이고 민족을 강조하며, 軍과 행정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띤다. 5·16혁명 등 남한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던 상황이었음을 상기하게 된다. 그리고 주체와 김일성의 빈도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주체사상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남한과 민족을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서 민족이라는 범주에는 3·1운동, 8·15와 같은 역사적 사건, 통일문제, 한국전쟁, 조총련, 해외동포, 재일동포 등의 소분류 범주가 들어 있다. 재일동포 및 조총련을 다룬 사설은 50년대에 3.1%, 60년대에 10.3%, 70년대에 3.8%, 80년대에 2.5%였다. 80년대에는 조총련의 언급이 전혀 없다. 재일교포 북송시기가 1959~69년이었다는 사실이 참고가 될 것이다.

한편, 통일문제는 50년대에 15편(4.2%), 60년대에 14편(4%), 70년대에 50편(13.6%), 80년대에는 16편(5.8%)로서 전체의 7%를 차지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사설은 각 연대순으로 8편(2.3%), 6편(1.8%), 16편(4.4%) 및 16편(5.8%)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70, 80년대에는 남북적십자회담이 있었음을 상기하게 된다.

70년대에 이르면, 주체와 김일성의 부각이 가장 현저해 지며, 혁명과 민족에 대한 언급도 갖다. 80년대에는 주체와 김일성의 강조와 함께 다시 黨의 중요성과 혁명, 인민의 존재를 강조하기에 이른다. 로동신문사설에서 언급된 주제로서 인민은 주로 군중로선적 방법을 강조한 것들을 이 범주에 넣었다. 군중로선이란 인민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인데, 소분류에 의하면 이 군중로선의 강조가 나타나는 사설이 50년대에 14편(4%), 60년대 3편(.9%), 70년대 3편(.9%), 그리고 80년대에는 다시 14편(5.1%)의 추세를 보인다. 정권의 기반이 확고치 못했던 50년대와 부자세습의 진통이 있은 80년대초에 공통의 관심사로서 지지기반이 되는 인민중심의 군중로선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80년대는 경제적 어려움과 세습의 정치적 과정을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있음이 여실하다.

4. 국제관계 부문

국제관계 분야에서 사설의 주제로 자주 등장하는 나라는 미국(22.6%)이고 아시아(18%), 아프리카, 중동(12.7%), 중공(12.6%), 쏘련(10.1%), 동구(9.1%) 등의 순이다. 아시아에서는 월맹(6.4%)과 일본(3.1%)이 자주 나오지만 기타 여러나라(7.1%)도 언급하고 있고, 아프리카(11.3%)의 경우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의 나라들을 지목하고 있다. 단일 국가로서는 역시 미국 다음이 중공, 쏘련, 월맹, 일본, 쿠바(2.6%) 등이다 (표 7).

여기서도 시기에 따른 변화가 분명하다. 1950년대에는 쏘련(23.0%)이 두드러지게 자주 사설주제로 다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이 동구(4.2%)와 중공(3.9%)의 순이다. 쏘련의 군사지원에 이은 전후 복구의 원조, 중공의 참전과 그에 잇따른 원조등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흔히 1950년대를 對쏘·중밀착期로 보는 說이 사설주제에서 중·소를 다루는 빈도로도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미국에 대한 언급은 모두가 남한에서의 미군철수를 비롯한 미국의 對남한정책 및 對外정책에 대한 비난·비방내지 반미투쟁의 부추김인데, 이 시기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반면에 평화를 강조하는 사설이 11%나 되어 전후의 분위기 안정을 위한 시도로 짐작된다.

그러나 60년대 경제건설과 주체사상의 구축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적어도

〈표 7〉 국제관계 부문 연대별 변화추세(중분류) (%)

	50년 대	60년 대	70년 대	80년 대	계 N
미국	13.7	31.3	21.5	16.7	22.6 291
아시아	10.3	25.4	23.0	1.5	18.0 422
아프리카, 중동	2.4	9.5	23.8	24.2	12.7 261
중공	14.8	8.8	13.4	18.2	12.6 132
쏘련	23.0	7.3	1.9	6.8	10.1 1,106
동구·구라파	17.5	4.3	5.7	12.1	9.0 —
국제관계 일반	5.8	3.3	5.7	12.1	5.6 —
평화	11.0	2.6	—	2.3	4.2 —
쿠바·남미	—	6.2	3.4	3.0	3.5 —
회의·儀典	1.4	1.4	1.9	3.0	1.7 —
계	99.9	100.1	100.0	99.9	100.0 —

대외관계에 있어서 미국과 아시아에 대한 주제가半을 넘는데, 이때가 월남 전쟁의 시기여서 월맹에 대한 지지와 미국비방이 상당수 차지하고, 또 제3 세계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시기인 점을 고려하게 된다. 특기할 것은 쏘련에 관한 주제가 50년대의 23%에서 60년대는 7.3%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점이다. 후루시초프의 서방과의 평화공존선언과 중·쏘 분쟁, 그리고 1962년 쏘련의 對북한 경제·군사원조중단 등 일련의 사건들이 그 원인으로 작용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중공에 대한 것도 50년대의 14.8%에서 60년대는 8.8%에 지나지 않는다.

60년대 전반에는 중공쪽으로 기울었다가 1965년 쏘련이 다시 경제·군사 원조를 재개하면서 후반은 쏘련쪽으로 기울며 우왕좌왕하던 북한은 중·쏘 분쟁으로 중공과 쏘련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틈을 타 1966년 10월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외교에서의 자주를 선언하고 이로부터 제3 세계 국가에 대한 접근을 차츰 시도하기에 이른다. 62년 케네디 당시 쿠바사건으로 쿠바와 남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미국에 대한 비방도 아울러 격렬해진다.

70년대의 대외관계의 관심이 본격적으로 아프리카와 중공등 제3 세계 국가로 옮기면서 쏘련을 주제로 한 사설이 1.9%로 현격히 떨어지는 반면, 1970년 주은래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중공과 북한관계가 정상화되고 중공의 원조가 따른 쏘련의 원조를 앞지르면서, 중공(13.4%)의 상대적 중요성은 다시 부각된다. 아시아에 대한 관심도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특히 월맹에 대한 우호관계를 자주 강조하고 있고, 미국에 대한 비방은 60년대보다는 줄었으나 상대적으로 여전히 큰 비중(21.5%)을 차지하고 있다.

80년대에 이르면 미국의 상대적 비중이 현저히 줄어드는 반면, 아프리카, 중동과 중공, 그리고 동구권의 비중이 커진다. 이 시기에는 남한이 중동지방에 근로자들을 대거 파견하였고, 미국이 중공과의 수교를 재개한 때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1975년 8월 비동맹회의에 가입한 이후로 더욱 제3 세계국과의 관계속에 그 세력을 확보하고자 안간힘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5. 사회·문화 부문

끝으로 사회 및 문화 분야를 살펴보자. 사회분야에서는 사회심리가 24.9

%로 으뜸이고, 이어서 농촌과 도시, 사회단체, 여성·가정등의 순이다. 이 중에 농촌에 대한 사설이 88편으로 13.9%를 차지하는데 비해 도시에 대한 언급은 3.2%에 불과하다. 여기서 사회심리란, 인내, 창의성, 반보수주의, 규율, 질서, 공중도덕, 변화에의 적응력, 계획성, 적극성, 책임성 같은 태도와 성향들을 포함한다. 그 중에서 계획성을 강조한 사설은 50년대부터 차례로 4(1.7%), 6(4.6%), 7(5.1%), 9(6.8%)편으로 늘어나며, 책임성의 경우에도 각각 3(1.3%), 1(0.8%), 2(1.5%), 12(9.0%)편으로 80년대에 두드러진다. 물론 이 숫자들은 절대수가 미미하지만 이러한 성향의 강조가 50년대와 특히 80년대(38.4%)에 두드러지는 것은 그 시기의 어려움과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50년대에는 그밖에도 생활조건과 위생 같은 것을 강조하며, 특히 관료주의를 비판하는 사설이 매우 두드러진다. 정권초기, 전후 복구기에 자칫 자리잡기 쉬운 관료주의적 성향을 경계하는 조짐으로 이해된다. 한편, 문화부문에서 정권의 정착을 위한 문화·예술의 선동·선무를 크게 부각시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것이다. 북한의 문화·예술이란 위낙 성질상 사회주의 정권의 선전·선동 활동의 수단 이상의 것이 아니며, 개인우상화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는 여성과 가정, 아동과 청소년, 근로자와 노동계급 및 인텔리겐차 등 계급적 요소들을 강조하는 한편, 사회주의적인 모본이 될만한 인물과 성공사례들을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혁명의 전통을 확립하는 데에 사회의 주요 계층·집단들을 동원하고자 한 흔적이 엿보인다. 동시에 문화 분야에서는 체육을 특별히 장려하고 과학·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체육의 독려는 하나의 동원체계로서 역시 혁명 확립이라는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고, 과학·기술의 권장은 60년대가 경제부흥기로서 중공업과 군수공업 분야의 기술도입, 기술혁신을 크게 강조하고자 했던 시기임을 상기할 수 있다.

70년대에 오면 계급의식과 사회주의적 정신생활에 대한 강조가 매우 두드러지게 되고 각종 사회단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눈에 띤다. 아울러 농촌과 도시 지역공동체에 관한 언급이 비교적 빈번하다. 이때는 경제가 어려운데다 김일성 개인우상화를 강화하던 시기임을 다시금 상기하게 된다.

여기에서 여성과 관련있는 주제를 다른 사설들만 별도로 살펴보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사회에서 의외로 여성에 대한 관심도가 저조하다는 것

〈표 8〉 사회·문화 부문의 연대별 변화추세(증분류) (%)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계 N
(사회분야)					
사 회 심 리	25.4	15.3	20.3	38.4	24.9
농 촌 · 도 시	19.0	16.8	22.5	15.0	18.4
사 회 단 체	3.4	9.9	13.0	10.5	8.4
여 성 · 가 정	8.2	15.3	7.2	2.3	8.2
모 텔	2.6	13.0	9.4	10.5	7.9
아 동 · 청 소 년	6.9	12.2	6.5	2.3	6.9
제 급의식 · 사회주의정신	2.2	3.0	12.3	9.8	6.2
생 활 조 건, 위 생	9.5	6.1	2.2	4.5	6.2
근로 · 노동계급 · 인테리	5.6	6.9	5.8	1.5	5.0
관 료 주 의	11.2	—	—	—	4.1
조 직	4.3	.8	.7	5.3	3.0
기 타	1.7	.8	—	—	.8
계 N	100.0 232	100.1 131	99.9 138	100.1 133	100.0 634
(문화분야)					
교 육	35.2	35.6	56.4	26.5	39.3
과 학 · 기 술	21.1	28.8	14.5	35.3	23.7
언 론	14.1	11.9	16.4	17.6	14.6
문 화 · 예 술	25.4	6.8	1.8	14.7	12.7
체 육	4.2	16.9	10.9	5.9	9.6
계 N	100.0 71	100.0 59	100.0 55	100.0 34	99.9 219
(기타분야)					
	16.3	39.5	27.9	16.3	100.0
N	7	17	12	7	43

을 알 수 있다(이온죽, 1980). 먼저 여성을 다룬 사설이 50년대 이후 각 연대별로 12(5.2%), 11(8.4%), 8(5.8%) 및 3(2.3%)편으로 모두 34편(5.4%)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가정·어머니·부인등은 모두 합쳐도 연대순으로 3, 6, 1편이고 80년대에는 언급조차 없다.

한편 문화면에서는 교육에 대한 사설이 과반수(56.4%)를 차지하고 있다 〈표 8〉. 1977년 9월 5일에 「사회주의 교육체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뿐 아니라 개인승배의 주체이데올로기 강화도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동시에 언론의 역할에 대한 강조도 강화되고 있고 체육의 권장도 보인다.

1980년대에는 다시 사회심리적 태도와 자세의 독려가 크게 신장되고 모델

의 제시와 계급의식 고취, 사회단체의 독려, 조직화, 언론과 문화예술 장려 등이 두드러진다. 특히 계급의식고양을 강조하는 사설수는 50년대에는 아주 미미하다가(2.2%, 4편), 60년대에 12.9%(4편)으로 늘고 70년대에 12.3% (17편), 80년대에는 9.8%(13편)에 이른다. 경제개발의 추진과 정치적 선전이 필요한 시기에 노력동원의 수단으로 이를 강조한 듯하다. 물론, 과학·기술의 강조 또한 역대 어느때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제2차 7개년 경제 계획(1978~84)에서도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 우리는 「로동신문」사설의 주제에서 강조한 바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추세를 살펴 보았다. 그 추세에는 일정한 유형이 떠오르고 그것은 당대의 주요 과제나 목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이제는 사용 언어와 표현의 변화 추세를 분석해 본다.

IV. 用語와 表現의 변화추세

언어는 한 사회의 형성 요소인 동시에 그 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사회구조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언어를 보면 남북간의 문화적 이질화를 절감하게 된다. 사용하는 단어의 생소함도 그러하지만 표현의 방법에도 드러나는 현상이다.

신문 사설의 제목이 담는 용어와 표현은 이런 뜻에서 특히 그 사회의 여론을 대변해주는 언어가 되는 셈인데, 북한의 경우에는 그것이 정권과 黨의 입이라는 특이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사설의 용어와 표현양식은 곧 그 사회의 언어문화와 사회구조의 성격을 보여줄 것이고, 나아가 시간적 차원에서 변동의 단면을 간접적으로나마 시사해 줄 것으로 본다. 지금부터 앞에서 제시한 분석의 틀에 따라 검토해 보겠다.

1. 表現 양식과 強度

사설제목에서 쓰는 용어가 어떤 것을 표현하고자 하며, 그것을 얼마만큼 강렬하게 나타내는가를 보았더니, <표 9>에서 보는 것처럼 선동·독려 및 동원적인 표현으로서 보통 정도의 강도를 드러내는 것이 52.8%로 과반수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보통정도의 칭송·찬양 및 긍정적 평가가 18.5%, 그

〈표 9〉 연대별 사설제목의 표현 양식과 강도 (%)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계	N
보통정도의 선동, 독려, 동원적 표현	44.3	43.4	61.2	66.7	52.8	2,962
보통의 칭송, 찬양 긍정적 평가	24.3	19.8	15.0	13.7	18.5	1,040
격렬한 선동, 독려, 동원적 표현	1.7	7.7	9.2	12.0	7.4	413
서술적, 중립적 표현	19.0	6.2	1.1	1.0	7.2	403
보통의 비판, 비난, 비방, 축구	6.4	9.8	2.2	2.0	5.4	304
열렬한 칭송, 찬양 긍정적 평가	2.0	5.3	8.2	2.8	4.8	268
격렬한 비판, 비난 비방, 축구	2.1	7.7	3.0	1.4	3.8	214
기타(분류불가, 불명)	.1	.1	—	.4	.1	7
	99.9	100.0	99.9	100.0	100.1	5,611
	1,465	1,577	1,519	1,050	—	5,611

밖에 격렬한 선동·독려·동원적 표현(7.4%), 중립적·서술적 표현(7.2%) 보통정도의 비판, 비난, 비방, 축구(5.4%), 열렬한 칭송, 찬양 등(4.8%), 그리고 격렬한 비판 등(3.8%)의 순서로 나타난다.

간추리면, 북한 「로동신문」의 사설은 주로 선동과 독려(모두 60.2%)가 목적인 듯 보이며, 누구를 찬양하는 것이 23.3%, 비판이 9.2%이고, 중립적으로 어떤 주제를 서술하는 사설제목은 7.2%로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연대별로 보면, 50년대에는 중립적인 제목이 크게 활용되었고, 보통정도의 칭송과 긍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많다. 60년대에는 이와 반대로 비판·비방 등의 부정적 선전이 비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비하여 70, 80년대에는 선동, 동원이 압도하며 비판이 크게 줄어 들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그 시기의 정치경제적 변동이 반드시 반영된다고 보아, 그것을 추적하기에 앞서, 각각의 표현양식과 강도가 주제에 따라 어떻게 다

〈표 10〉 주제별 표현 양식과 강도 (%)

	선동 (보통)	칭송 (보통)	선동 (격렬)	서술적 비판 (보통)	칭송 (격렬)	비판 (격렬)	기타		N
경제	79.3	3.8	9.7	6.4	—	.8	—	—	100.0 2,261
정치	43.5	18.3	8.2	7.2	9.8	7.2	5.8	.1	100.1 1,348
국제	5.2	51.0	1.9	4.2	13.9	11.3	12.2	.3	100.0 1,106
사회	60.7	14.8	8.5	10.6	2.4	2.7	.2	.2	100.1 634
문화	56.6	16.4	2.7	17.8	1.4	4.6	—	.5	100.0 219
기타	37.2	32.6	7.0	18.6	—	2.3	—	2.3	100.0 43
계	52.8	18.5	7.4	7.2	5.4	4.8	3.8	.1	100.0 5,611

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10〉에 의하면, 선동적 표현이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부문이 경제분야이고, 다음은 사회분야다. 정치부문에서는 오히려 비판과 비난⁽⁵⁾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고, 칭송과 긍정적 평가는 대외관계에서 가장 현저하다. 문화부문에서는 중립적 서술의 비중이 비교적 크다.

2. 특기용어

북한에서는 사설과 같은 글의 제목을 붙일 때 자주 쓰는 특기 용어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용어들에서 우리는 상당한 이질감을 경험하게 된다. 역시 연대별, 주체별로 분석해 본 결과는 〈표 11, 12〉와 같다.

우선 〈표 11〉을 보면, 비약·전진, 앙양, 발전, 혁신, 불길, 전환, 창발성·현대화·축진·증산과 같이 격려적인 용어를 가장 빈번히 쓰고(11.3%), 이와 거의 비슷한 비율(11.2%)로 역할·과업·사업·임무·지도 등의 과업 우선적 용어를 쓰고 있다. 다음으로 전투적 용어가 9.2%, 혁명(적), 투쟁(적)이 8.1%이다. 이상의 용어들은 확실히 공격적이거나 적극적인 것임을

〈표 11〉 연대별 특기용어의 변화추세 (%)

	연 대				합 계
	50	60	70	80	
비약, 전진, 앙양, 발전, 혁신, 불길, 전환, 창발성, 현대화, 축진, 증산, 생산	8.4	8.2	15.1	14.6	11.3
역할, 과업, 사업, 임무, 지도	15.0	7.7	8.7	15.0	11.2
전투, 승리, 필승불패, 불패, 백전백승, 고지(전령), 요새, 속도전	4.4	10.7	13.1	7.9	9.2
투쟁(적), 혁명(적)	3.9	9.2	10.1	9.6	8.1
친선, 호상원조, 평화(적), 사절(위대한)수령, 지도자, 총성	6.4	5.8	6.0	7.0	6.3
유일(체제), 주체(적), 영구불멸	.7	2.3	10.8	4.1	4.5
단결, 통일	2.1	1.7	4.7	3.7	3.0
운동, 군중(적), 군중적 운동, 인민적운동, 대중(적)운동	2.7	2.2	2.2	3.2	2.5
영예, 영광, 영웅(성), 모범	2.1	1.6	1.8	1.9	1.8
절약, 교양, 교양사업, 주인	1.4	.3	.8	.7	.8
해당부	52.8	50.2	26.7	32.3	41.2
	99.9	99.9	100.0	100.0	99.9

(5) 정치부문에서의 비판·비난적 표현은 대체로 對남한이, 국제관계에서는 미국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표 12〉 주제, 분야별 특기용어 (%)

	격려적 용어	과업 용어	전투· 리투· 승리	혁명· 쟁	친 선	정치 지도 자	단합 · 통일	운동	모본	교양 · 기타	비 당	N
경 제	21.8	12.7	8.5	6.3	.1	2.2	.2	4.1	.8	.243.0	99.9	2,261
정 치	3.1	13.3	11.5	11.9	.8	10.8	8.0	1.0	2.6	1.435.7	100.1	1,348
국제관계	.8	.2	8.4	7.8	30.0	.5	4.8	1.0	1.4	.145.1	99.9	1,106
사 회	10.1	14.5	7.6	7.9	.6	5.5	.5	3.2	5.2	2.242.7	100.0	634
문 화	11.4	32.0	2.7	6.4	1.4	5.5	.5	2.3	1.4	2.733.8	100.1	219
기 타	2.3	—	48.8	7.0	—	9.3	—	—	—	—32.6	100.0	43
	635	631	515	455	351	253	169	142	104	44	23	5,611
	11.3	11.2	9.2	8.1	6.3	4.5	3.0	2.5	1.8	.841.2	99.9	

알 수 있다. 그밖에 친선과 같은 말들, 지도자를 칭하거나 충성을 나타내는 말, 단합, 군중운동, 모본, 협약과 교양 등의 순이다.

50년대에는 역할과 과업수행을 다그치는 용어가, 60년대에는 전투적 용어가, 70년대에는 격려적, 전투적, 혁명적 용어와 김일성 찬양이 두드러지고, 80년대에는 격려, 과업이 우선이다.

부문별로는, 격려적 용어는 경제분야에서 가장 현저하다. 앞에서 선동·동원적 표현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정치 부문에서는 김일성이 단연 우세이고, 단합, 혁명, 전투, 과업등의 용어가 상대적으로 많다. 국제관계의 범주에서는 앞에서와 같이 친선이 지배적 용어이다. 사회, 문화분야에서는 과업과 역할 등의 용어가 앞서고 사회적 모본을 강조하는 면이 엿보인다(표 12)。

3. 語尾의 表현

한 가지 흥미있는 현상은 북한「로동신문」의 사설제목에는 「～하자」는식의 축구식 표현을 가진 어미가 자주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표 13, 14〉에 별도로 분석해 보았다. 「～하자」, 「～자」라는 말로 끝나는 제목이 전체의 73.7%를 차지한다. 연도별로 보면, 50년대가 64.9%, 60년대에 60.2%이던 것이 70년대에는 84.7%, 80년대에는 90.2%에 이르러 점차 이러한 어미를 쓰는 성향이 커지고 있다(표 13). 특히 경제(84.6%), 문화(83.1%), 사회(79.3%)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쓰인다(표 14).

그러면 주로 그런 어미를 가진 표현의 내용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쟁취

〈표 13〉 연대별 어미의 형식 (%)

	50	60	70	80	계
~하자, ~자	64.9	60.2	84.7	90.2	73.7
~야 한다, 요구된다	14.1	10.8	.4	1.3	7.1
~(하지) 말라	2.8	2.8	1.8	1.0	2.2
~하라	1.8	6.9	.9	.4	2.7
위하여, ~으로, ~에로, ~있게, 요구 한다(이다)	.1	.1	—	—	.1
위의 표현 없음	6.2	19.2	12.2	7.0	14.2
	99.9	100.0	100.0	99.9	100.0
N	1,465	1,577	1,519	1,050	5,611

〈표 14〉 부문별 어미의 형식 (%)

	~자	~으로, 을 에로, 있게 이다 등 기	하라	~해야 한다 된다	~(하지) 말라	해당부 분		계
경 제	84.6	10.9	.5	.4	.1	3.6	100.1	2,261
정 치	70.1	4.3	4.0	4.1	.1	17.4	100.0	1,348
국 제 관 계	51.0	1.8	7.1	4.5	—	35.6	100.0	1,106
사 회	79.3	7.7	1.6	1.4	—	9.9	99.9	634
문 화	83.1	10.0	—	—	—	6.8	99.9	219
기 타	62.8	9.3	—	—	—	27.9	100.0	43
	73.7	7.1	2.7	2.2	.1	14.2	100.0	5,611

(이록·수행·관철·집행)하자는 식의 성취와 과업수행을 드러하는 어미가 사설 제목의 25.4%에서 나타났다. 다음이 개선(동원…등)하자는 동원·조직적 어미가 22%, 고양·전진의 어미가 18.1%이다. 그 밖에 「~하자」가 17.5%, 기타 어미가 2.7%이다(표 15).

연대별로는 50년대에 성취적 어미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60년대에는 동원·조직적 어미가, 70년대에는 고양·전진적 어미가, 그리고 80년대에는 고양·전진적 어미에 이어 동원·조직적 어미도 상당히 두드러지게 쓰이고 있다(표 15).

한편, 분야별로 보면, 경제에서는 역시 동원·조직 및 각종의 「~하자」, 고양·전진의 어미가 두드러진다. 정치부문에서는 성취, 고양·전진, 동원·조직의 순이나 큰 차이는 나지 않고 국제관계 분야에서 과업성취가 매우 두드러진다. 사회부문에서는 큰 차이는 없으나 성취가 상대적으로 많고, 문화

〈표 15〉 연대별 어미의 내용 (%)

어	미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계	N
쟁취, 이룩, 수행, 관철, 집행하자		39.1	22.7	21.2	16.4	25.4	1,424
개선, 동원, 발휘, 집중, ~해야한다, ~하라, ~하(지)말라, ~위하여, 되어야 한다, 벌리자, 힘을 냉자, 늘이자, 돋자, (거두어)들이자, ~시키자, 다그치자, 요구(된)(한)(이)다, 보장하자, 짜고들자, 지키자, 꾸리자, 갖추자, 배우다, 본받자 ~되자, 앞당기자, 끝내자, (짚이) 들어가자, 잘 지원하자		21.5	23.2	17.6	27.2	22.0	1,234
강화, 진군, 전진, 앙양하자, 전개하자, 빛내자, 둘이자, 일으키자, 세우자, 키우자 앞세우자, ~나가자, 떨쳐나서자		7.6	11.7	27.3	29.0	18.1	1,014
기타, ~하자		11.5	18.4	21.3	19.2	17.5	985
~으로, ~을, ~에로, ~있게 등		4.1	4.8	.3	1.1	2.7	154
위의 표현 없음		16.2	19.2	12.2	7.0	14.2	800
		100.0	100.0	99.9	99.9	99.9	—

〈표 16〉 부문별 어미의 표현 (%)

	성 취	동원 · 조직	고양 · 전진	기타 하자	기 타	해 당 무	계
경 제	14.4	28.5	22.4	26.8	4.2	3.6	99.9
정 치	26.8	18.8	20.7	14.5	1.8	17.4	100.0
국제관계	43.0	14.5	2.1	4.2	.6	35.9	100.0
사 회	25.4	20.7	23.0	17.4	3.6	9.9	100.0
문 화	40.6	19.6	23.3	9.1	.5	6.8	99.9
기 타	30.2	4.7	20.9	11.6	4.7	27.9	100.0
계	25.4	22.0	18.1	17.5	2.7	14.2	99.9

부면에서도 성취적 어미가 두드러지게 눈에 띤다(표 16).

4. 특이한 형용적 표현

앞의 분석틀에서 소개한대로 북한의 용어에는 특이한 형용적 표현들이 자주 눈에 띤다. 이들은 물론 그 사용빈도 자체가 전체의 26%에 불과하지만, 참고해 보면, 주로 70년대와 80년대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다(표 17). 그리고 「힘있게 · 힘차게 · 억세게 · 떨쳐나서」 등의 표현은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자주 쓰고, 「열렬히 · 적극 · 진공적 · 다그쳐 · 단호히」 등은 국제관계에서 두드러지며, 「질적으로 · 철저히 · 정확히」 같은 형용적 용어는 경제부문에서 많이 쓰인다(표 18).

〈표 17〉 연대별 특이한 형용적 표현

(%)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계
힘있게, 힘차게, 억세게, 떨쳐나서	.1	2.1	11.3	14.0	6.3
질적으로, 철저히, 정확히	3.4	3.0	4.9	6.1	4.2
열렬히, 적극, 진공적, 다그쳐, 단호히	2.9	3.6	5.3	5.4	4.2
회기적, 결정적	1.8	1.7	2.3	2.0	2.0
실속있게, 튼튼히	.5	1.0	2.5	3.3	1.7
훌륭한, 영예로운, 영광스러운	.9	1.2	3.0	1.6	1.7
빨리, 시급히, 급속히	1.5	1.6	1.6	.8	1.4
계속, 불멸의	.6	1.7	1.4	1.7	1.4
군중적	.8	1.5	2.0	.6	1.3
크게, 대대적, 거대한, 대담하게, 통이 큰	.5	1.0	.7	.8	.7
창조적, 창발적, 현실에 맞게, 요구에 맞게	1.4	.2	1.0	.4	.8
충직한, 애국적	.3	.4	.5	.1	.3
위의 표현 없음	85.3	80.9	63.5	63.2	74.0
	100.0	99.9	100.0	100.0	100.0

〈표 18〉 부문별 특이한 형용적 표현

(%)

	협	적극 • 열렬	질적	결정 적	실질 적	훌륭	시급	계속 • 불멸	군중	크게	창조 • 애국	비 해당
경 계	7.6	3.6	6.9	2.6	1.2	1.5	2.8	1.8	2.5	1.4	.5	.1
사 회	8.7	2.5	2.8	1.6	3.8	2.2	.9	2.7	1.6	.5	3.5	1.3
문 화	2.3	3.2	4.1	3.2	3.2	2.3	.9	.5	1.8	—	1.8	—
정 치	7.7	2.4	3.7	.8	2.2	2.3	.4	1.0	.1	.3	.4	.6
국 제 관 계	1.3	9.1	.3	1.8	.5	.7	.2	.4	—	.4	.1	.1
기 타	7.0	—	—	—	—	7.0	—	—	—	—	—	—
	6.3	4.2	4.2	1.9	1.7	1.7	1.4	1.4	1.3	.8	.8	.3
												74.0
												100.0

〈표 19〉 연대별 특수표현 사용빈도

(%)

	연 대				전 체	N
	50	60	70	80		
더 (더 육)	4.7	14.5	21.5	18.8	14.6	799
높 이	.1	1.4	6.7	3.5	2.9	159
새 로 운	2.5	5.6	12.1	7.6	6.9	377
위 대 한	4.3	2.9	11.2	2.9	5.5	301

끝으로, 「더(더육), 높이, 새로운, 위대한」과 같은 표현이 자주 보이기에 따로 분석해 보니, 역시 70년대와 80년대에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기 시작

했음을 알 수 있었다(표 19).

V. 討論

以上의 자료분석은 매우 서술적이고 피상적인 선에서 그치고 있음을 자인 한다. 그러나 자료의 부족, 시간적 제약, 재정적 지원의 한계 등으로 말미암아 더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심층적 분석을 할 여지가 없었다. 그런대로 이번의 시도는 어디까지나, 연막에 쌓여 있는 듯한 북한사회의 변동상을 한 단면에서나마 개괄적으로 추적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분석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번 연구에서는 자료 자체에의 접근과 그것의 검토 과정이 중요한 경험 이 되었고, 따라서 자료의 성격을 우선 소개하는 일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북한사회의 변동을 특정짓고자 할 때, 그 기초자료가 거의 전부 부분적인 것은 피할 길이 없다. 법률문서의 종단적 비교, 김일성 전집류의 분석, 북한으로부터 귀순한 사람들의 체험담의 채집, 분석, 외국 방문객(기자·학자 등)들의 관찰보고 등, 그 어느 자료도 그 자체로서의 한계를 가질 뿐더러, 시간적 비교를 계속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 연속적으로 분석·비교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하나가 신문이다.

신문의 성격에 관해서는 이미 서론에서 밝힌 바 있지만, 신문의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변동을 추적하고자 하면, 으례히 보도기사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을 것을 기대한다. 그러자면, 보도기사들이 「사실보도」의 의미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북한의 신문기사는 사실보도로서의 가치보다 선전·선동의 기능에 치우쳐 있고, 이미 선별적으로 계제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신문의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자면, 어느 것을 표집해야만 가장 사실보도에 가까운 기사들을 고를 수 있을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 그렇다고 30년 이상의 신문을 대상으로 신문기사의 전수를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표본추출의 근거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표집분석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심각한 偏倚(bias)의 문제를 안고 시작하는 것이 된다.

이에 비하여 신문 사설은 애초에 선전의 목적이 뚜렷한 글이면서, 반드시 그때 그때의 중요한 관심사, 쟁점, 문제, 목표 같은 것을 다루게 되어

있는 성질의 것이라는 특징이 매우 분명하다. 북한의 「로동신문」의 경우 사설은 매일 정기적으로 반드시 게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러한 논지는 더욱 확실한 근거를 얻게 된다. 따라서, 사설을 분석단위로 삼으면 표집을 한다 해도 그 근거가 뚜렷하다. 그러나, 전수조사도 가능하리라는 생각에서 우선 사설의 제목만이라도 일일히 기록하여 본 결과 6천에 가까운 제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두가지 접근이 가능하였다. 하나는 사설을 표본추출하여 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제목만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었다. 표본조사는 이미 시기별로 한 보기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으나 시간과 비용의 제약을 감안하여 제목만을 분석하게 되었다.

사설의 제목이 얼마나 그 내용을 반영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단 소수의 표본으로 대조를 해 보았다. 놀랍게도, 「로동신문」의 사설은 그 성격이 단순하여 제목에 밝힌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다루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물론, 제목 자체가 모호하거나 일반적인 것은 내용을 보아 분류하였다.

적어도 전수조사는 변화를 추적하는 데에 있어서 표본조사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시기구분을 고려해 보았다. 1년, 3년, 5년, 10년 단위 등 인습적인 구분이 가능하겠으나, 10년 단위로 크게 잡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분석해 본 결과 50년대 이래 10년 단위마다 뚜렷한 변화의 유형이 드러나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찾아 보게 되었다.

여기에서 그 변화의 추세를 되풀이 요약하지는 않겠으나, 주제의 내용은 물론, 용어와 표현 양식 등에서도 변화를 추적할 수 있었음을 다시 강조하는 바이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와 같은 자료나 분석 방법으로 사회변동을 얼마나 깊이 다룰 수 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업은 하나의 기초 작업으로서 다음의 심층분석의 기틀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Mesa-Lago, Carmelo

1975 "A Continuum Model for Global Comparison," C. Mesa-Lago and C. Beck
(eds.) *Comparative Socialist Systems: Essays on Politics and Economics*,

Pittsburgh, PA: Univ. of Pittsburgh.

김경동 · 이은죽

1986 사회조사연구방법—사회연구의 논리와 기법, 박영사

박권상(편)

1979 북한의 신문 · 방송, 국토통일원 연구보고서

북한연구소

1983 북한총람 1945~1982.

이광재

1979 “북한신문의 대중동원성에 관한연구”, 경희대학교 정치학 박사논문.

이상두

1979 마르크스 · 레닌주의와 언론——북한언론의 본질과 비판——, 범우사.

이상우

1975 “로동신문사설에 나타난 북한정책 관심의 변천 : 1967~1973” 성곡논총 제 6집.

1983 “Themes of North Korea's Unification Messages: A Study on Pattern Shifts,

1948~68, —경험연구의 평가 I”, 김광웅 외 사회과학방법론, 박영사.

이온죽

1980 “북한사회에 있어서 남녀평등의 이념과 실제—공산권연구를 위한 ‘성의 사회학’적 접근”,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 2권 제 2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pp. 191-217.

1982 “북한 「사회」연구의 현황과 방법론적 과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 4권, 제 3호. pp. 205-224.

1984 “공산주의사회에 있어서 이론과 실제의 괴리—북한사회연구를 위한 분석틀”, 社會와 思想, 5집,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정세현

1985 “북한의 국제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태도와 대외관, 자아상연구”, 논문집 제 9호,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조형준

1972 “북한언론에 관한 연구—노동신문사설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신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